

News

코로나 재확산에 2차 소상공인 대출 중복 신청 허용 검토

뉴스1

금융당국,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도 '2차 소상공인 대출'을 중복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2차 소상공인 대출 소진율이 6%에 불과...금융위 관계자,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복 신청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현 "라임 100%배상 수용하라" 은행 압박

매일경제

윤석현 금감원장,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

"분조위의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와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

온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문제 잘 알아…환경 개선할 것"

아이뉴스24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지주사 CEO들의 연임 문제를 지적..."회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외이사가 추천되고, 그 사외이사들이 다시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금융위,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CEO를 포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

돈 빼가도 어쩔 수 없어…예금금리 낮추는 은행들

이데일리

은행들 '돈 안되는' 상품을 정리하기 시작...저금리 장기화에 이자 감당 어려워져...2분기 순이자마진 1.42% '역대 최저'...예대마진 관리하기 위해 주담대 금리는 0.02~0.08%p 올려 은행 관계자, "수신금리를 조정하면 소비자 이탈이 있을 수 있지만, 은행이나 상호금융도 모두 금리를 내리고 있고 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삼성·한화도 '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받는다

한국경제

25일 금융그룹감독법이 국무회의 의결...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 금융지주처럼 금융당국 감독 받아야…

금융그룹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할 의무...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

재보험이 뭐길래…생보사, 돈 드는 디아이트 '설상가상'

데일리안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올해 들어 5월까지 쓴 재보험 비용은 총 7,205억원으로 전년 동기(6,916억원) 대비 4.2%(28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더 늘어 관계자, "...IFRS17을 앞두고 보장성 보험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재보험료 비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재무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것"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도입…'동학개미' 화력 증강되나

이데일리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매매 제도화를 위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컨설팅을 오는 4분기에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허용할 전망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는 향후 금지 기간 만료 후에도 공매도 유지가 유력한 대형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

이동걸·정동규 회장 26일 회동..마지막 담판

파이낸셜뉴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동규 회장, 26일 3번째 회동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마지막 담판...이 회장과 정 회장은 아시아나 관련 논의를 위해 앞서 2차례 만난 바 있어…

이날 만남에서 아시아나 인수합병(M&A)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26일 회동에서 이 회장이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에 관심…이에 따라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일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